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자리 잡고있는 칠골교회가 새로 개건되었다.

예로부터 통악산에서 부채살처럼 뻗어내린 일곱번재 골짜기라고 하여 칠골이라 불리는 곳에 교회가 처음 설립된것은 1899년이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 《신사참배》강요로 교세가 매우 미약하였던 칠골교회는 해방후에야 비로소 공화국정부의 올바른 종교정책에 따

새로 개건된 칠골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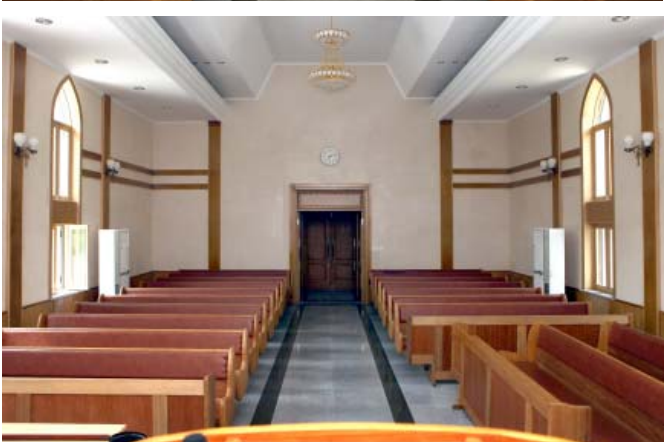
라 모든 신자들이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여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누리는 교회로 발전할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이 일으킨 조선전쟁으로 인해 북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폭격에 파괴되고 많은 신자들이 희생되었으며 살아남은 신자들은 사망

으로 흩어져 가족레배초소들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번에 칠골교회가 또다시 개건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자유로

게 할수 있는 물질적기초가 마련되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더 잘 보장될수 있게 되었다.



였다. 개건된 칠골교회는 북과 남의 그리스도인들이 화해와 협력, 통일의 회합을 이루고 세계평화를 가꾸는 매우 의미깊은 장소로 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삼복철의 유래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무더운 여름철기에 삼복을 정하고 이 기간에는 로동과 휴식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음식들도 독특하게 만들어 먹었다.

삼복은 여름철의 가장 더운 때인 초복, 중복, 말복을 이르는 말인데 이날을 복날이라고도 하며 이때의 더위를 삼복더위라고 한다. 삼복의 《복》은 엮드릴 《복》자로서 한여름의 더위를 피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랜 옛날부터 복날과 관련된 기록들이 전해오고있다. 삼복은 10간 12지의 10간에 있는 경

삼복철과 민족음식

으로 세는데 하지날부터 세번째경이 오는 날을 초복, 네번째경이 오는 날을 중복, 립추날부터 첫경이 오는 날을 말복이라고 하였다.

초복이 제일 빠른 날자는 7월 12일이며 제일 늦은 날자는 7월 22일이었다.

중복과 말복사이가 20일간격을 두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계산법으로 올해 초복은 7월 18일, 중복은 28일, 말복은 8월 7일이다.

삼복은 한해치고도 가장 더운 때로 알려져있었으므로 예로부터 사람들의 생활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있었다. 삼복철이 되면 조밥이나

흰쌀밥을 더운 단고기국에 말아먹으면서 땀을 내는것을 으뜸가는 몸보신으로 여기었다. 또한 삼복철의 음식으로는 삼계탕, 소고기매운탕, 햇보리밥과 과국 등이 있다.

일부 사람들은 초복에만 단고기국을 먹고 중복과 말복에는 다른 음식을 먹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오랜 민속 전통을 놓고보아도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단고기의 약효와 가공 방법

우리 나라에서는 단고기로 만든 식품이 구장, 단고기국, 사철탕, 영양탕, 보신탕 등 다양한 이름으로 민족음식의 당당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나온 《산림경제》, 《해동농서》에 단고기를 삶고 찌는 법을 비롯하여 조리법들이 실려있다.

개는 6~10개월이면 다 자라기때문에 식용으로서의 생산성이 높을뿐아니라 단고기국이나 사람의 영양을 보충하는데 아주 좋으므로 옛날부터 부모가 알아놓게 되면 단

고기를 대접하여 기력을 회복시켰다고 한다.

《동의보감》에는 단고기가 성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어 장과 위를 두텁게 하고 기력을 더해준다고 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년중 행사 및 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기》에는 단고기국에 밥을 말아서 땀흘려 먹으면 더위를 물리치고 허약한것을 보강할수 있어 삼복중의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하였다.

단고기 100g에는 단백질 18.5g, 지방 4.1g, 칼슘 10mg이 들어있으며 닭, 돼지, 소, 오리고기에 비하여 비타민 A, B가 훨씬 많다.

또한 단고기는 다른 짐승고기에 비해 지방은 많지 않지만 동맥경화의 원인으로

되는 포화지방산을 억제하는 불포화지방산을 다량포함하고있다.

단고기가 소화와 흡수가 잘 되고 좀처럼 체하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되어있다. 누렁개의 고기는 뼈를 강하게 하고 혈기를 왕성하게 하며 녀성들의 피를 보충하고 불임증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 생기는 탈수현상과 빈혈증에 좋다.

검은개의 고기도 사람의 체질을 강하게 하기때문에 남성들에게 더욱 유익하며 녀성들의 난산을 치료하는 데도 좋다. 단고기를 가공할 때 향나무로 만든 도마와 참대로 만든 도구를 쓰며 뿔수목 샘플을 넣고 쪄이 되 화학조미료를 넣지 않는 것이 좋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에서 물물교환 또는 화폐에 의한 교환과 매매의 역사는 오래지만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농민시장이 처음으로 등장한것은 5세기말이다.

그 당시 전라도의 무안, 라주 등지에는 큰 흥년이 들어 사람들이 스스로 한달에 두번정도 읍에 모여 필

요한 물건들을 교환하였는데 이것을 《장문》이라고 하였다.

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첫 농민시장

농민들과 수공업자로서 생계유지가 목적이였다. 시장은 몇개 마을사람들이 하루에 갖다줄수 있는 교종의 중심지에 설치되였다.

17~18세기경부터 농민시장은 더욱 번창하여 산간벽지에도 농민시장이 생겼으며 18세기중반기에는 이미 전국적으로 농민시장이 1천여곳이나 되였다.

본사기자

겸손성 (1)

《곡식은 이삭이 여물수록 고개를 숙인다.》아는것이 많고 수양이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다는것을 비껴 이르는 말.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깊이 흐르는 물이 소리가 나지 않듯이 교양이 있고 수양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행동한다는것을 일깨워주는 말.

《으르렁대는 소는 밌지 않는다.》공연히 큰소리를 치는 사람이 실상은 역량이나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겸손하고 무게있게 행동할것을 이르는 말.

《버짐에도 속이 있다.》변변치 않은 버짐에도 속대가 있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대가 없겠느냐는 뜻으로 사람을 누구나 알아잡아보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소나무의 모습같았다.

《송이! 꼭 이 산정에 올라야만 그림을 그릴수 있소?》

리녕은 숨이 차고 다리맥이 쑥 빠지여서보다는 한다하는 남정이 광자한데 집이 된것이 쑥스러워 얼굴에 내뻤은것이였다.

《광필이 아버지, 좀만 더 힘을 내시오이다.》

송이는 울랐던 바위우에서 잠자리처럼 살짝 뛰어나려 리녕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머리에 찢든 수건을 벗어서 팔죽같은 땀방울들이 번지르르한 리녕의 얼굴이며 목을 살짝살짝 문대였다.

리녕은 격정이 북받쳤지만 꼭 누르고 《됐소, 됐소.》하고 군말을 했다.

《화구함을 인주소이다.》

송이는 날래게 리녕의 어깨에서 화구함을 벗겨내며 제가 돌쳐했다.

리녕은 불쑥불쑥 치미는 련정을 참을수 없어 지그시 혀를 깨물었다.

어느새 바위우로 기어오른 송이는 제 손을 내밀고 소리쳤다.

《광필이 아버지! 어서 잡으시오요.》

리녕은 침을 꿀꺽 삼키고 또 하나의 바위를 툴아올랐다.

드디어 산정에 오른 리녕은 아! 하고 목청껏 탄성을 터치며 발을 구르고싶었다. 수천척바위산의 머리우에 두다리를 딛고보니 만척구름우

에 등실 떠서 천하를 굽어보는 심정이였다.

(내 나라의 금수강산아-) 부풀은 감정은 그의 가슴



에 등실 떠서 천하를 굽어보는 심정이였다. (내 나라의 금수강산아-) 부풀은 감정은 그의 가슴

세계문자들의 순위 첫자리 - 조선어문자

자질문자란 말소리를 적는 바탕글자이다.

세계 여러 민족들의 말을 하나의 문자로 쓰려면 그 문자가 모든 민족어의 말소리를 표기할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표기하기 쉽고 리해를 빨리 할수 있어야 한다.

1444년 1월에 창제된 훈민정음에 대해 세계언어학계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조선말의 특징은 첫째로, 말소리가 매우 풍부하며 둘째로, 어휘가 풍부하며 문법구조가 제인것이다. 셋째로는 과학성과 편리성이 잘 보장된것이다. 즉 기본글자의 제작원리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점, 기본글자로 점차 획을 더해주는 방법으로 다른 글자들이 정연하게 파생되어 있는 점과 자획이 간단하여 배우기 쉽고 쓰기도 편리한

점 등의 우수성이 있다.

영국의 음성언어학자 제프리 샴슨교수는 조선어가 발음기관을 상형화하여 글자를 만들었다는것도 독특하지만 기본글자에 획을 내는 방법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훌륭하다고 하였다.

그는 또한 조선글이 소리글자이지만 새로운 높은 단계의 자질문자로 된다고 평가하였다. 그의 이러한 평가는 조선글이 세계적으로 유일한 자질문자로서 가장 우수한 문자라는것을 증명하는것이다.

또한 세계언어학계에 명문대학으로 알려진 영국 옥스퍼드종합대학 언어학대학에서는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세계 모든 문자들의 순위를 정하였는데 조선어문자가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되어 1997년 10월

평양성은 고구려시기인 552-586년에 건설하였다.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유리한 지대에 평지성의 우점과 산성의 우점을 종합하여 평안성형식으로 쌓은 평양성은 둘레는 약 16km, 성벽의

인구가 100만이 훨씬 넘은 때도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중세기초에 이만한 대도시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었다.

평양성

평양성안에는 내성, 중성, 외성, 북성의 4개 부분성을 두었다. 평양성에는 크고작은 성문들을 두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성문들은 대동문, 칠성문, 보통문,

1일 유네스코에서는 세종왕시기에 처음으로 만든 훈민정음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였다.

유네스코에서는 말은 있지만 글이 없어 고생하는 소수 민족들에게 전문가들을 파견하여 그들의 말을 조선글자로 표기하도록 가르치고있다. 조선어는 과학적인 언어여서 쓰기가 편리하기때문에 지구상 거의 모든 민족어들을 표기할수 있는 글이다.

20세기말 프랑스에서 진행된 세계언어학자들의 학술토론회에서는 에스페란토어가 너무 협소하기때문에 조선어를 세계공용어로 쓰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기되었다.

현재 유네스코는 세종대왕상을 제정하고 문맹퇴치와 언어학분야에서 업적을 쌓은 사람들에게 수여한다.

본사기자

전금문, 현무문이다.

지금까지 평양성에서는 성벽쌓기를 담당한 지방과 구간, 감독자의 지휘와 이름 등이 밝혀진 글자들을 새긴 고구려성들이 여러개 발견되었다.

평양성은 우리 민족의 오랜 력사의 증경자로서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 투쟁력사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본사기자



보통문

민속놀이와 관련한 레절풍습

우리 겨레의 고상한 레절은 다채로운 민속놀이를 할 때에도 놀이 발양되었다.

민속놀이에는 그 방법과 특성에 따라 몇사람이 놀수도 있고 수십, 수백명이 노는 대중적인것도 있다. 그러므로 놀이를 재미나면서도 즐겁게 하자면 놀이와 관련한 규정과 함께 놀이참가자들 호상간의 레절을 바로 지키는것이 중요하다.

민속놀이를 할 때에 경기당 사자들사이에는 옷사람을 존경하는 레절이 철저히 지켜졌다. 누구나 즐겨하는 장기를 놀 때에는 《로호소청》이라고 나이많은 사람이 붉은색쪽을, 나이 어린 사람이 푸른색쪽을 쥐는것이 하나의 판례로

되어온것을 들수 있다. 장기를 다 놓은 다음에는 《약자선수》라고 수가 낮은 사람이 먼저 쓰게 하는것이 수가 높은 사람이 베풀어야 할 하나의 도덕으로 여기었다.

처음 겨루어보거나 수가 비슷한 사람들사이에는 푸른색쪽을 켜 사람이 먼저 쓰게 하는것이 장기놀이에서 지켜야 할 레절로 되어있다.

바둑을 놀 때에도 누가 검은 돌을 쓰고 흰 돌을 쓰는가를 정하는데서 《년고자백》이라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흰 돌을 쓰고 나이가 아배인 사람이 검은 돌을 쓰는 미풍이 있었다. 물론 수가 높은 상수가 흰 돌을 쓰고 수가 낮은 하수가 검은 돌을 쓰는 경우

도 있었지만 나이에 따라 돌을 정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민속놀이에서의 레절은 경기를 관람하는데서도 높이 발양되었다. 경기장안에 들어오면 관람자는 장배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였으며 경기 전 과정을 주의깊게 지켜보았다. 마을로인들과 옷사람들을 제일 좋은 자리에 모시고 그들이 경기를 관람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각방으로 관심을 돌리었다.

또한 누구나 경기성적을 성전에서 마음대로 점수하고 승리한 선수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으며 이것을 경기를 관람한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덕으로 간주하였다.

본사기자

사화

명화 《레성강도》 (3)

글 전철호, 그림 김윤일

리녕의 곁에 섰던 광필이가 《아빠, 이젠 아지미가 송나라 배에 올라 갔겠나이다.》 하고 말하며 손시늉을 한다것이 아직도 파란색감의 물이있는 보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후렸다.

《이크!...》

《호호호-》

그 바람에 방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였다.

《광필이 아버지, 이걸 보시나이다.》

송이는 허리춤에서 얻른 풍경무늬청동거울을 꺼내 리녕의 얼굴을 비치였다.

《송이, 이럴새가 겹소. 어서 거기로 가보아야겠소.》

《아빠, 덤비지 마소이다.》

그 바람에 또 《하하-》 《호호-》 하는 큰 웃음들이 뿔었다.

여섯살치고 광필은 주위를

보는 눈이 이렇게 앞섰다. 물이 되기 전에 어미를 잃은걸 동냥것으로 기른 보람이 있었다. 저 불쌍한것이 눈만 뜨면 그림을 그리내기에 분주히 돌아치는 화공들의 세상에서 붓을 쥐는 재간보다 사람과 사물을 속속히 헤아리는 재주부터 먼저 익혀졌다.

《세면을 하소이다.》

송이는 어느새 다투야에 정갈한 물을 떠왔다.

리녕은 그제야 송이가 이 객관에 잠깐 들려갈 잡도리가 아님을 알아차렸다.

그는 뜨거움을 삼켰다. 노레나 파는 천한 가기라고 남들은 천시하지만 리녕에게는 송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순결한 녀인으로 둔보였다.

리녕은 자신의 가슴속에 송이에 대한 애모쁜 정이 짙들어차있음을 강렬하게 느끼

었다.

(아직은 내 마음을 더 깊이 물어두어야 해. 나의 《레성강도》를 훌륭한 명화로 만드는데 모든걸 바치자.)

그날 송이는 배일 낮에 좌벽란정의 뒤에 있는 미라산에 오르자고 약속하였다. ...

2

리녕은 눈을 비비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나리꽃마냥 연약해보여서 이 손에 끌려갈줄 알았던 송이가 속속을 휘둘러 나는 피꼬리마냥 아스라한 미라산을 앞장에서 이끈다. 리녕은 송이가 내민 부드러운 손을 잡고 길념는 절벽들을 몇개나 기어오르지 모른다.

지금 앞장에서 바위우에 사뿐 기어오른 송이를 보면 하늘색치마에 또 하늘색치마의 차림새여서 그대로 절벽우에 뿌리를 박은 청정한